

TPP 협정 서명

- 협상에 참가한 12개국이 뉴질랜드에서 TPP협정에 서명('16.2.4)

□ 12개국이 TPP 협정에 서명

- TPP 협상에 참가한 12개국 각료들이 '16.2.4 뉴질랜드에서 협정에 서명
 - '15.10.5 TPP골격에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조문이 확정되었으며, 향후 각국 정부는 국회 심의 등 국내 비준 절차를 추진
 - TPP가 발효되면 세계의 GDP 약 36%, 인구 약 8억 명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

□ 일본의 동향

- 일본정부는 서명에 앞두고 '16.2.2 각의에서 협상 참가국과의 협정문서 그리고 미국, 호주 등 개별국가와 교환할 문서 등 8개를 결정
 - 협정문서에는 쇠고기,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대폭 인하시키는 대신 수입이 급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도입,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회피할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
 - 미국과 교환문서에는 양국 간에 주식용 쌀의 수입쿼터를 연간 7만 톤까지 증가시키는 것과, 이 수입쿼터가 충분히 이용되지 않을 경우는 일본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을 명시
- 일본은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장관이 사임('16.1.29)함에 따라, 서명식에는 다카토리 슈이치 부내각장관이 참석
 - 후임으로 선임된 이시하라 노부테루 TPP담당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 등 국회 대응 때문에 서명식에 불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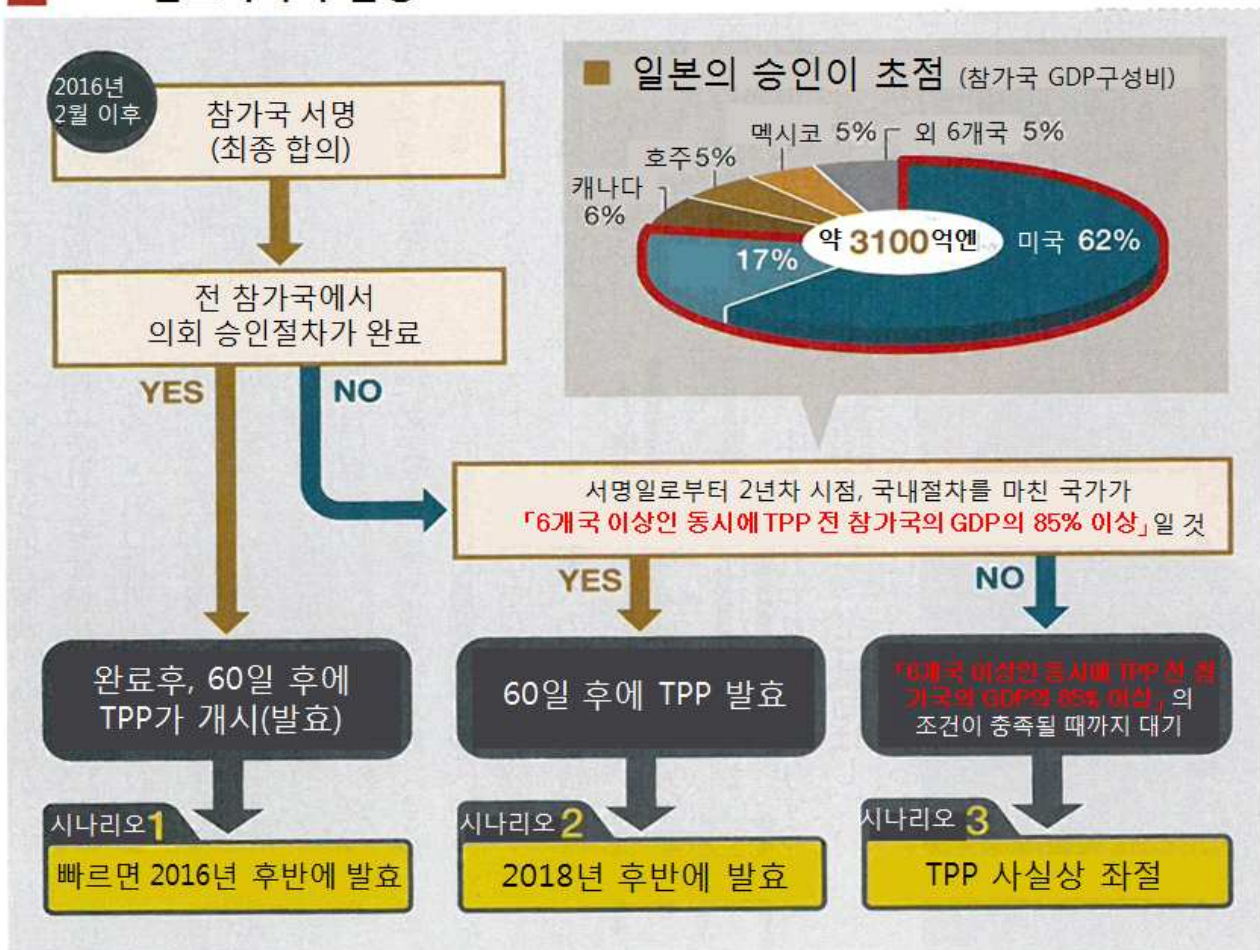
- 이시하라 장관은 서명된 협정안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, 일본이 조기 발효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
- 아베 총리도 농림수산업 피해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할 방침
- 일본은 '16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4월 이후 국회에서 TPP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지만, 복잡한 협상과정이나 협정 내용을 잘 아는 아마리 전 장관의 사임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
- 일본정부는 '16.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('16.6.1)에서 승인을 받을 목표로 추진

□ 향후 전망

- TPP는 원칙적으로 ①모든 참가국이 비준한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, 또는 ②서명 후 2년이 지나면 역내 GDP의 85%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한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하게 됨
- 어떤 방식이든 미국과 일본의 비준은 필요하지만, 각국의 정치나 법 정비 상황으로 발효는 '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
 - * 미국과 일본만으로 GDP 78%를 차지, 미일과 4개국의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면 '18.4월에 발효될 예정
- 미국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TPP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 비준 승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말레이시아는 TPP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관세철폐나 무역 및 대내투자 확대 등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, TPP서명 이전인 '16.1.28에 국회에서 비준을 승인
- TPP 참가 12개국은 서명식 이전에 각료회의를 개최, 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자국의 상황 등을 논의
- 또한 TPP에 신규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(한국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대만 등)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

- 실제로 신규 참가가 인정되는 것은 TPP 발효 후가 되지만, 일본정부로서는 많은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둔 아시아에서 참여국이 늘어나면 자동차 등 일본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지원할 방침. **KJCF**

TPP 발효까지의 일정

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6.1.28, 2.3/4), 요미우리신문(2016.2.3/4), 아사히신문(2016.2.4), 마이니치신문(2016.2.2), 로이터통신(2016.2.3.), NHK온라인뉴스(2016.2.2)